

김진오 부위원장 이용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예방 -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인구위기 대응 논의 -

-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11일 오후,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이용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예방하였다.
 - 양측은 이 자리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, 청년세대의 결혼·출산 인식 변화,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강화,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세대 간 연대 확대 등 정책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천주교는 그간 저출생·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생명·가족 존중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.
 - 대표적으로 나프로임신법*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2017년 여의도 성모병원에 나프로임신센터를 개소하는 등 난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 - * 자연(Natural), 가임력(Procreative)과 기술(Technology)의 합성어로 NaProTECHNOLOGY의 한국명칭, 여성의 몸이 가진 본래의 리듬을 회복해 자연스럽게 임신으로 이어가는 부부 중심의 난임 해결법
 - 매년 5월 첫 주를 '생명주일'로 지정해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.
 - 또한, 전국 각 성당을 중심으로 노인대학과 노인 사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신앙·문화·건강·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, 독거노인 방문, 세대 간 교류 활동, 공동체 돌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 문제 완화와 세대 간 연대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.

□ 김 부위원장은 “천주교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존중과 세대 간 연대 활동은 인구위기 대응에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”며 감사를 표했다.

□ 이날 천주교 예방을 끝으로 7대 종단과의 소통을 마무리한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」에 따라 발족하게 될 인구전략위원회의 저출산·고령사회를 비롯한 인구문제 대응에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.

붙임: 현장방문 사진(별도 송부)

담당 부서	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업지역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성근 (02-2100-1234)
		담당자	연 구 원	이정미 (02-2100-1237)